

240922_계 21:17 일백 사십 사 규빗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

- 지난주 강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성벽)을 척량하려고 **금으로 만든 갈대** 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가치들**을 척량하여 교회(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오늘 강론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은 지난 2월 18일 강론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주께서 다시 강론할 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강론하는 것이며 자세히 살펴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케 되었다.

1. 요한계시록 21장 17절 헬라어 번역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

- 카이 에메트레센 토 테이코스 아우테스 καὶ ἐμέτρησεν τὸ τεῖχος αὐτῆς
헤카톤 텃세라콘타 텃사론 페콘, ἑκατὸν τεσσαράκοντα τεσσάρων πηχῶν,
메트론 안드로푸 호 에스틴 앙겔루 μέτρον ἀνθρώπου ὃ ἐστὶν ἀγγέλου.
/그리고 그것(도성)의 그 성벽을 그가 척량하였더니 일백 사십 사 규빗들의, 사람의 척량을, 그것은 천사의 척량이라

1)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ㄱ. 우선 17절의 성벽은 네모반듯한 새 예루살렘의 고(높이)를 말함이 아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

- 새 예루살렘의 장(길이)와 광(너비)과 고(높이)는 12,000 스다디온 씩으로 (1 스다디온=192m) 192m x 12,000=2,304km 나 된다.

ㄴ. 그러므로 17절의 성벽은 네모반듯한 그 도성 자체가 아니라 외벽의 높이를 말함이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두른 성벽[외벽]의 높이→1규빗=44.45cm, 44.45 x 144=64m 0.8cm 이다.)

2) 그리고 분명히 천사가 금으로 만든 갈대 자로 그 도성의 그 성벽을 척량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척량**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ㄱ. 얼핏보면 사람의 척량, 곧 사람들이 사용하는 치수의 단위(규빗) 그대로 천사가 척량했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신다.*

ㄴ. 헬라어 문법도 '그 성벽을'(토 테이코스 τὸ τεῖχος)에서 성벽이 목적격이고, '사람의 척량'(메트론 안드로푸 μέτρον ἀνθρώπου)에서 척량도 목적격인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은 주요한 단어들에 깃들여 있는 비유적이고 상징적 의미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성서에서 성벽은 구원을 상징한다.

1) 이사야 26장 1절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

- 와헬 호모트 야쉬트 예슈아 וְשֹׁמֵר יְהוּדָה וְשֹׁמֵר יְהוּדָה / 그가(야훼가) 구원으로 성벽들과 바깥벽을 두리라

2) 이사야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

- 호모타이크 예슈아 וְשֹׁמֵר יְהוּדָה /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 위의 구절들에서 성벽의 히브리어 호마 מָחָה 는 '보호하는 세력, 지키는 힘, 구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삼상 25: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

3) 그러므로 천사가 금으로 만든 갈대 자로 그 도성의 성벽을 척량하였다는 것은 곧 구원 받은 사람들(사람의 척량)에 대한 척량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벽을 척량한 일백 사십 사 규빗들의 의미

1) '백'이라는 수의 성서적 의미

ㄱ. '최대한'을 의미

창 26:12-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

마 13:8,23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

ㄴ. '전체'와 '하나도 잃지 않음'을 의미

마 18:12-14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

요 6:38-39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

요 17: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

눅 15:3-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

요 18: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

2) '사십'이라는 수의 성서적 의미

ㄱ. '공의의 실현'을 의미

- 노아 때의 홍수 심판에서 40이라는 수는 당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철저히 실현됨을 의미한다.

창 6:5-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

창 7:4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

ㄴ.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 직전의 40일 금식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대리적 고난 받음(공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마 4:1-2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3) '사'라는 수의 성서적 의미

- 성서에서 4라는 수는 동서남북 사방위를 기초로 하여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단 11: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

단 7:1-8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불 사이에 그 날개가 뿔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뿔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

- 이제 지난번 강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규빗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다시 강론하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4. 개역성서에서 '규빗'에 대한 언어적 이해

1) 17절에서 '규빗들의'의 헬라어 페콘 $\pi\eta\chi\omega\nu$ 은 팔뚝을 뜻하는 페퀴스 $\pi\eta\chi\upsilon\varsigma$ 의 명사.소유격.남성.복수이므로 '규빗들의'로 번역된 것이다.

- 페퀴스 $\pi\eta\chi\upsilon\varsigma$ 는 히브리어 암마 אמה (치수[길이]의 단위로서 팔꿈치로부터 중지 끝까지의 평균 길이, 대략 17.5인치[44.45cm])의 의미를 따라 번역된 용어이다.

2) 규빗이란 말은 라틴어 쿠비툼 *cubitum* 의 한글음역이다.

ㄱ. 쿠비툼 *cubitum* 은 '팔꿈치'라는 뜻인데 이 역시 히브리어 암마 אמה 와 헬라어 페퀴스 의 의미를 라틴어 '팔꿈치'로 번역한 것이다.

-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부터 규빗이라는 라틴어 음역이 등장하는 것은 카톨릭 라틴 교부 제롬이 A.D. 4세기 경에 라틴어 역본 불가타 성서에서 암마 אמה 의 번역어로 사용한 쿠비툼 *cubitum* 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방주의 크기: 장(길이) 삼백 암마 133m35cm, 광(너비) 오십 암마 22m22.5cm, 고(높이) 삼십 암마 13m33.5cm

창 6: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

- 또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규빗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ㄴ.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어 암마 אמה 의 원래의 뜻과 그 비유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의 '성벽을 척량한 수, 곧 사람의 척량, 일백 사십 사 규빗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

5. 암마 אמה 의 네 가지 의미

- 히브리어 암마 אמה 는 네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1) 첫째, 길이(치수)의 단위

- 팔꿈치로부터 중지 끝까지의 평균 길이(대략 17.5인치, 44.45cm)

2) 둘째, 비유적 의미로서 문지방의 '터와' 탐남의 '한정(한계)*'

ㄱ. 문지방의 터가

사 6:4 '이 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

- 핫싹핌 암모트 חֲסִיקָה אֲמוֹת /그 문지방들의 터들이

ㄴ. 네 탐남의 한정

렘 51:13 '많은 물 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

- 비츠에크 암마트 $\text{בִּיצְעֵךְ אֲמַתְךָ}$ /네 탐욕의 한계

- 이 문장에서 암마 אֲמַת 는 바벨론이 그 우상숭배와 이웃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재물을 약탈하며, 특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기명들을 탈취했던 바벨론 제국의 그 탐욕의 '한계'를 가리키는 비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렘 51:7 '바벨론은 여호와와 수종의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

합 1: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

렘 51:11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와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

- 이 의미가 중요하다.

3) 셋째, '모성(母城), 수도성읍, 큰 성읍, 대도시'를 의미한다.

삼하 8:1 '이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텍암마를 빼앗으니라 '

- 하암마 메텍-에트 חֲאָמָה מֶטֶק-אֶת /그 모성의 굴레를

- 굴레는 말이나 소를 부리려고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얹어매는 줄을 뜻한다.

- 그러므로 다윗이 당시 블레셋의 수도 성읍의 굴레를 취했다는 것은 블레셋 전체가 다윗의 수중에 있기 됨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넷째 의미는 지명으로 암마 산, 곧 기브온으로 가는 도상의 언덕 이름이다.

삼하 2:24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

- 암마 기브아트-아드 $\text{אֲמָה גִּבְעַת-אֶד}$ /암마의 언덕(작은 산)까지

5) 암마 אֲמָה 의 이 네 가지 뜻들 중에 두번째의 비유적 용법에서 '한계'라는 뜻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다.*

결론

-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 천사가 금으로 만든 갈대 자로 그 도성의 성벽(구원)을 측량한 수 일백 사십 사 규빗들(곧 사람의 척량)이 의미하는 것은
- 첫째, 인류의 구원(성벽)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의의 실현(40의 의미)을 통해,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 전체(4의 의미)의 구원의 수를 하나도 잃지 않고(100의 의미) 측량한 것을 의미하지만
- 둘째, 그러나 그 구원의 수는 한계가 있는(한정되어 있는) 수(규빗, 곧 암마의 비유적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 7:21-27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

마 8:11-12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앓으리라 '

눅 13:23-30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

- 셋째, 이 뜻(규빗, 곧 암마의 비유적 의미, '구원의 한계'라는 뜻) 때문에 이 강론을 다시하라고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 넷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킴으로서 그 **구원의 한계 안에**(144 암마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